

[홈](#) > [뉴스](#) > [자치행정](#) > [진안](#)

진안초·백운초 학생들, 폐교에서 한 여름밤 추억거리 ‘듬뿍’

2016년 08월 25일 (목)

김성봉 기자

진안초와 백운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백운면 평장야영장 흙사랑 체험장에서 텃밭 수확 체험을 실시해 한여름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폐교였던 백운야영장에서 지난 25일까지 2박 3일간 다양한 친환경 농작물(수박, 방울토마토, 사탕수수 등 16종)을 눈으로 직접 관찰해보고 만지면서 수확도 해보고 현장에서 직접 딴 농작물을 학교 학생들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에 즐거워했다.

체험행사를 기획한 김선애교육장은 “백운 야영장은 버려진 폐교로 학생들을 위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해 농작물 수확체험행사 뿐 아니라, 학생자치활동, 회의 및 연수 장소, 목공체험, 요리체험, 진안지역 각종 문화체험행사, 지방무형문화재 20호 박정오 응사와 함께하는 매사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